

K-기획전시(Special Exhibition): 송파책박물관의 ‘책 속에 꽃 핀 사랑’ 특별전 개최

이종연*

1. 전시의 개요

송파책박물관은 오는 2025년 1월부터, 8월 31일까지, 2층 기획전시실에서 <책 속에 꽃 핀 사랑>을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특별전시 주제는 조선 후기부터 근현대까지 책 속에 담긴 다양한 사랑 이야기다. ▲설렘의 첫사랑 ▲사랑의 성장 ▲이별의 자취 ▲사랑의 서약 등 총 4부로 나누어 시대별 사랑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과 기록물들을 선보인다.

먼저 ▲‘설렘의 첫사랑’에서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사랑 이야기 「춘향전」, 황순원의 단편 소설 「소나기」 등을 통해 사랑이 처음 피어나는 순간의 감정을 조명한다. 또 <연필로 명상하기>의 안재훈 감독이 제작한 소나기 애니메이션도 만나볼 수 있다.

그리고 ▲‘사랑의 성장’에서는 1900년대 초반 등장한 ‘자유연애운동’과 함께 시작된 새로운 연애 문화를 소개한다. 연애편지, 전화, 삐삐 등 시대별로 달라진 사랑의 표현 방식을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하다. 특히, 90년대 유행했던 삐삐를 마련해 당시 연인들이 숫자로 주고받던 암호를 눌러보며 아날로그 감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.

다음으로 ▲‘이별의 자취’는 김소월의 「진달래꽃」 같은 이별의 아픔은 물론 근대 신소설,

* 현재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이다. 강원 지역 문화콘텐츠와 문학콘텐츠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. 0421whddus@naver.com

산업화시대 문학에서 상실과 시대적 아픔을 담은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. 마지막으로 ▲‘사랑의 서약’에서는 전통적 혼례 문화부터 근대적 사고의 확산으로 나타난 자유로운 결혼관까지 각종 자료에 담긴 사랑의 약속과 변화하는 결혼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.

이 밖에도 전시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람에 재미를 더한다. ▲테마 코너 ‘다양한 사랑의 빛깔’에서는 가족애, 애국심 등 다채로운 사랑의 형태를 다룬 작품들을 선보여 사랑의 다양한 의미를 되새긴다. 또, 체험 코너에서는 ▲종이 디퓨저 만들기 ▲하트 책갈피 만들기 ▲편지쓰기 등 사랑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보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.



2. 전시의 구성



2025년 1월에 시작될 본 기획특별전은 ‘사랑’이 담겨 있는 책을 통해서, 시대를 초월한 사랑의 이야기들을 탐색하는 것이다. 조선 후기 이몽룡과 성춘향의 애절한 사랑부터 자유로

운 사랑을 꿈꾸던 근대인들의 열망, 그리고 오늘날 디지털 공간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사랑의 형태까지, 사람들이 나누고 꿈꿔온 사랑을 책을 통해 다시 만날 수 있다.

시대에 따라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사랑 이야기는 당대의 삶과 생각, 가치관을 보여준다. 이번 전시에서는 문학과 잡지 등의 서적은 물론, 편지나 일기 등 다양한 기록 속에 담긴 사랑 이야기를 소개하며, 책 속에 담긴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온전히 남아 또 다른 사랑으로 꽃피울 작은 씨앗이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.

